

# 문고본을 위하여

정명환

성심여대 대우교수 · 불문학

어느날 친구인 C사장이 술좌석에서 해준 한 토막의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우선 소개해 보려고 한다.

“남들의 부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 아내는 백화점이나 큰 상점에서 예쁘고 색다른 그릇만 보면 그 앞에서 떠날 줄을 모르고 한두 가지 꼭 사려고 한다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편잔을 주기가 일쑤였지. ‘몇백년 살 수도 없으면서 그 많은 그릇을 사모으기만 하고 쓰는 것은 못 보겠는데, 또 사서 어찌자는 거요?’ 한데 하루는 우연히 어느 책방에 함께 들어갔다가 내가 이 책 저 책을 만지작거리자 아내는 버리고 버리던 복수를 하려는 양, 이렇게 빈정거렸다네. ‘당신은 무시로 책방을 들락거리고 꼭 몇권씩 사니 그 술한 책들을 언제 다 읽겠다는 거예요?’ 나는 묵묵부답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후로는 그릇 사는 아내를 나무라지 않기로 했네. 언제 읽을지 모르면서도 책 사는 버릇을 버릴 수 없는 나 자신을 위한 일종의 호신책으로서 말일세.”

나도 C사장과 같아서, 그의 부인이 그릇 사듯 자꾸만 책을 산다. 전공과 상관없는 책들을 더 많이 산다. 특히 외국에 가면 눈은 날의 강아지처럼 이 책방 저 책방을 뛰어다니고, 그렇게 해서 산 책들이 트렁크를 무겁게 한다. 그러나 과중한 돈이 드는 것은 아니다. 싼맛한 표지의 값싼 문고판들이 내가 가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중에는 무슨 보물을 만난 듯이 흥분을 자아내는 것들도 있다. 애초에 하드커버의 원판으로 나왔을 때는 너무 비싸서 군침만 흘리고 돌아서게 했던 것이 몇분의 일의 싼값으로 문고판으로 변신해서 진열되어 있으니 말이다. 가령 연전에는 일본에 간 길에 모로하시(諸橋)의 「中國古典名言事典」을 그런 문고판으로 산 일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요새 왜 문고판의 양서가 드문 것일까? 프랑스의 어느 비평가는 문고판에 대해서 맹렬한 비판을 가한 일이 있었다. 고전작품은 그윽한 사원에서 도를 닦듯, 전심전력으로 경건하게 읽을 때야 비로소 그 비밀을 우리에게 엿보여 주는데, 그런 거룩한 책들이 문고판의 모습을 띠고 속악한 대중의 수중에 들어갈 때는 마치 창녀처럼 천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외면하는 한국의 출판계는 이러한 엘리트주의에 의해서 책의 성역을 지키려는 것일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내가 아는 한 출판사 간부의 말로는, 작은 책은 다루기가 성가시고 또 이문도 박해서 서점이 기피하고 따라서 출판사에서도 잘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혹독하게 말하자면 문화를 창달하겠다는 사람들이 우려할 만한 자본주의적 횡포에 끼어두고 있는 셈이다.

고전이나 걸작이 문고판의 형식을 취할 때 과연 창녀처럼 타락하는 것인지, 혹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뜻깊은 반성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논의는 일단 접어두자.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때로는 여러 출판사가 연합하여, 정평있는 책일수록 문고판을 내고 있는 것은 후자의 가능성을 겨냥한 것이리라. 그 질과 종류, 유통구조와 판매실적은 한 공동체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듯조차 하다. 이 점에서 볼 때 우리의 형편은 출판물의 범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후진적이다.

오늘도 지하철에서 짐스러운 국판으로 된 대중소설을 읽고 있는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그가 호주머니에 꼭 들어갈 가볍하고 예쁜 문고본으로 李孝石의 단편집이나 혜세의 「데미안」을 읽고 있으면 오죽이나 보기 좋을까 하고, 그리고 나처럼 언젠가 읽겠다고 버르면서, 훌륭한 우리말로 된 세계의 고전들을 맥주 한두 잔 값으로 수시로 한두 권씩 사모을 수 있게 된다면 그 젊은이 자신이 얼마나 기뻐할까 하고, 이런 생각이 문고판을 사랑해 온 한 인간의 망상이 아니기를 바란다.

표지	2	미래사회 좌우할 멀티미디어 관련서
세미나	4	정보화시대 대비한 전자출판진흥책 출범 주최 '멀티미디어시대의 전자출판'
초점	6	출판사직원 어떻게 뽑고 대우하나 전문가 요구하지만 대접은 시원찮아
서평	8	류탁일 「한국고소설비평자료집성」- 소재영
	9	최병식 「동양회화미학」- 김영재
	9	공유식 외 「신경제사회학의 이해」- 이재열
	10	한철수 「서비스산업개방과 WTO」- 박태호
		차머스 「현대의 과학철학2」- 정병훈
	11	프랑수아 자콥 「생명의 논리, 유전의 역사」- 황상의
출판화제	12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지혜 묵은 책도 새단장... 험한 사회분위기에 경종울려
인터뷰	14	「개미」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외
이책 그사람	16	「너희가 재즈를 믿느냐」낸 장정일씨 「출판저작권 현장연구」피넨 김기태씨
	17	「이야기 한마당」피넨 안경환 교수 「활은 날아가지 않는다」낸 조용준씨
확대서평	21	조지 M. 포스터 외 「의료인류학」
연재기획	18	어린이를 섬기는 책과 사회 - 이호백 지금 이곳의 우리들 어린이 책을 위하여 7
자료	22	'94 문체부추천도서 선정목록 총 111종 138책 선정... 전국 6 백여곳에 배포
컬러화보	24	책읽는 사람들의 책읽는 풍경 독서세물결운동추진위 주최 사진공모 수상작
해외출판	26	다양한 유통채널 찾기에 비뻔美출판계 - 유은영
세계의 책	28	하버드법대 교수채용 뒷얘기 외 - 배병삼
	30	청소년추천도서
	32	독자서평
	34	화제의 신간
	36	신간안내
	44	200자 안내
	48	재미있는 책이야기